

사설

교수불자대회를 환영하며

세상에는 다양한 계층이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살고 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각각의 직업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교수도 특별한 직업은 아니다. 이 세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직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를 예고하고 현재의 문화를 분석하며 당대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이다.

신앙하는 교수불자들의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었다. 불교문화에 대한 공동 연구, 현대문명의 제반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상호 친목 도모 등을 통해 불교 증흥에 일조하자는 취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백담사 만해문화기념관에서 한국교수불자회 주관으로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지역 5개국에서 온 30여명의 교수불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문화와 불교'라는 제하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그렇지만 이 대회의 목적은 학술대회에 있었다기 보다는 아시아 지역 문화의 공통분모 중의 하나인 불교를

불교는 종교적 특성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 그런지 연합의식이 박약한 것이 사실이다. 계층, 직업, 취미 등에 따라 다양한 불교 동아리의 활약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지식인 그룹의 교류는 더더욱 없었던 일이다. 그렇기에 처음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의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세속정화는 8재계로

계율의 목적에 대해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세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한다. 첫째는 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을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물론 선악의 판단 기준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세월과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남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에 가치의 비중을 두고 있다. 세상 어느 종교와 다른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규범이리라.

비를 실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게 우리는 보살의 삶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보살같이 살아가 것을 주문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8재계는 재가 생활을 하지만 세속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시설된 계율이다. 부처님 재세 당시 8재계는 불교도 일반이 지키는 규범이었다. 그러나 북방의 환경적 특성, 문화적 차이 등으로 거의 사문화 되어 있었다. 그것을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지키겠다고 한다. 전 불자가 8재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을 하겠다고 한다. 정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 계율을 생활화하는 불교도가 되길 염원해 본다.

문화재청 직제개편 단행

건조물등급 1국3과 보강

문화재청(청장 노재섭)은 문화재 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문화재청에 '건조물국', '문화재정보과', '근대문화재과' 및 '동산문화재과' 등 1국 3과를, 국립문화연구소에 '건조물연구실'을 신설했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특기할 사항은 '건조물국'에 사적과, 건조물과, 근대문화재과 등 건조물 문화재 중심의 기능을 집중 배치하고 문화재기술과를 문화재정책과로 변경한 부분. 이는 불교문화재가 대부분인 목조·석조문화재의 보수정비와 보존관리 체계를 전문화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벤트 성격의 행사도 아니라 아시아 전지역의 교수불자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적 가치를 확대하는 단채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자 한다.

오유진 기자

계율지키기 포교사들 나섰다

1100여명 팔재계 수계·실천 대법회 봉행

법전중정 "형식보다 계발은 마음 더 중요"

매달 보름 특별 포살의식 갖고 잘못 반성

계는 오늘 받고 내일 파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지계(持戒)보다 수계(受戒)를 더 중요시 해온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계율 지키기 풍토조성을 위해 전국의 포교사들이 모범보이기에 나섰다.

연등축제에 기원을 둔 불교전통의식의 하나로 오계에 출가수행자의 생활상을 담은 세 가지 이계일제를 더한 것. 재가불자들이 이날 하루 동안 세속의 생활을 버리고 수행자의 삶을 닮아가려 노력하면서 출가인연공덕을 짓는 법하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8월17일 함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팔재계 수계·실천 대법회를 봉행했다. 중정 법전 스님이 증명법사로,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이 계사로 참석한 이날 법회는 전국에서 1,100여명의 포교사가 참가해 높은 호응도를 반영했다. 팔재계는 과거 신라시대부터 봉행되어온 팔관회

법전 스님은 중국 율종을 확립한 도선율사 등의 일화를 소개하며 "계를 받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계를 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설법했다.

이에 앞서 포교사단 김대중 단장은 "포교사들은 수행과 포교라는 두개의 바퀴를 굴러가야 하는 임무를 가졌다"며 "수행에 있어 근본인 계율 지키기를 일상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팔재계를 수지한 포교사들은 한달에 6개월(8.14.15.23.29.30) 동안 계를 지키고, 그 내용을 수행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하여 매년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점검받게 된다. 또, 매월 음력 보름에는 특별포살의식을 가진다.

박원규 기자 bak09@buddhapia.com

법종단환경연대 보류

종단협, "성격상 부적합"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8월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종단 환경연대기구 설립안을 "종단협 성격상 맞지 않는다"며 보류했다. 기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과 절차상 종단협 산하기구로 둘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대신 각 종단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자고 결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문화관광부 중무시 통폐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의 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토록 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불교계 추천전형 확대

사범·예술·문과대 제외 전 단과대학으로

불교계 추천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문이 넓어졌다. 동국대는 2004학년도 2학기 수시 모집요강에서 서울 캠퍼스의 경우 불교계 추천 전형은 사범·예술·문과 대학을 제외한 전 단과대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당 포함 주지 스님이나 종립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어야 하고, 올 2월 졸업한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www.dongguk.edu)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받는다. 한편, 위탁대는 고교 재학 중 불교교과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었던 학생으로 학교장 및 불교계 지도자(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종단의 추천을 받았거나 각 종단의 성직자와 중무행정)에 근무하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불교문화학부에서 15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9월1일부터 19일까지이다.

권형진·박봉영 기자



조계종 정책자문위원회가 21일 타워호텔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조계종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스님 5명 등 21명으로 구성...활동 착수

조계종의 대 정부정책을 다룰 정책자문위원회(가칭)가 8월21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담(조계종 중앙총회의원·도법(실상사 주지·일민전 조계종 교육원장)·법등(조계종 중앙총회의원)·종상(불교사 주지) 스님 등 조계종 스님 5명과 복지·환경 등 16개 분

야 전·현직 관료 각 1인씩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법조분야 안문태(변호사)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총무원장직을 상설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는 △종단 대정부 정책 결정 △종단 대정부 현안문제 조정·교섭·위원 활동 △대정부 정책과제 연구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이동혁 기자



'연대' 민평

심민섭

스리랑카 수해지역 학교를 방문한 '연대' 민평단이 '스리랑카 새마을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연대' 민평단은 '스리랑카 새마을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Modern Buddhism and Buddhist life,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gazine,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Large advertisement for 'Myungdang Tamjigi' (명당탐지기) featuring a pickaxe and a map. Text describes the product as a tool for finding graves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KBS.